

신토불이 우리버섯

박 정 음
진원동초등학교 6학년

요즘 아이들은 피자다 뭐다 우리나라의 음식이 아닌 다른 나라의 밀가루 음식을 좋아한다.

나는 얼마 전 TV에서 우리 음식이 훨씬 영양가가 많다는 소리를 들은 적 있다. 모든 사람들은 '우리 음식 신토불이' 하면 버섯을 뽑을 수 있는데 버섯은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다.

우리 고장에서도 느타리버섯과 표고버섯을 재배한다.

버섯은 여러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먹을 수 있는 버섯은 표고버섯, 송이버섯, 찌리버섯, 느타리버섯 등을 먹을 수 있다. 하지만 버섯이라고 해서 모두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먹지 못하는 버섯에는 미치광이버섯, 외대버섯, 광대버섯 등이 있다. 이런 버섯은 절대 먹지 않아야 하겠다.

버섯은 뿌리·줄기·잎의 구분이 없으며 가느다란 실모양의 세포인 균사로 되어 있고, 자루와 갓으로 구분된다고 한다.

그리고 버섯의 생활은 엽록체가 없어서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생물이 만든 양분을 섭취하여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버섯은 숲의 낙엽이 쌓인 땅이나 죽은 나무, 식물의 몸 등에 붙어서 기생생활을 한다고 한다.

그럼 또 버섯이 어떻게 자라는지 알아볼까?

버섯은 흙씨로 불어나고, 갓 속에 생긴 흙씨가 땅에 떨어지면 균사라고 하는 하얀 곰팡이 같은 것이 생기게 된다. 그 균사가 자라 버섯이 되는 것이다.

요즘은 수입한 버섯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의 농산물 버섯을 점점

사라지게 만들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이면 우리나라 음식을 먹어야 하지 않는가? 우리의 버섯은 다른나라의 버섯보다 좀 비싸긴 하지만 영양가는 우리나라 버섯이 한 수 위라고 하는데 우리 어린이들은 왜 버섯을 먹지 않는지.....

다른 나라에서 많은 돈을 주면서, 수입한 음식을 먹는 것보다 값싼 우리 신토불이 버섯을 먹어 자기 몸은 자기가 지켜 보다 즐겁고 보람있는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자.

나도 이제부터는 버섯을 많이 먹어야 하겠다.